

음수량 체크에 돈이 있다



정상일 차장
(주)계흥

사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처음처럼만 닭을 기른다면...”이라는 푸념 섞인 말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 필자 또한 필드 관리자로서 많은 농장주들을 대면하지만 성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농장주들과 대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역시 “처음에는...” 하며 말문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농장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자연 환기 위주의 사육농장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웬을 이용한 강제 환기 방법을 대부분의 농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관리컨트롤기기를 통하여 조작방법 또한 단순화되었다. 이는 예전에 윈치를 손으로 돌려가며 온·습도 및 환기를 컨트롤하는 때보다는 관리자의 시간적인 여유가 몇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 ‘늘어난 시간을 과연 잘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쯤은 해보았는가? 많아진 시간만큼 사육관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예전에는 1.5kg 사육을 위해서 35일 정도의 사육을 했지만 지금은 30~32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이다. 물론 원자재 품질의 향상과 육종의 결과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관리자의 능력 또한 상당부분 향상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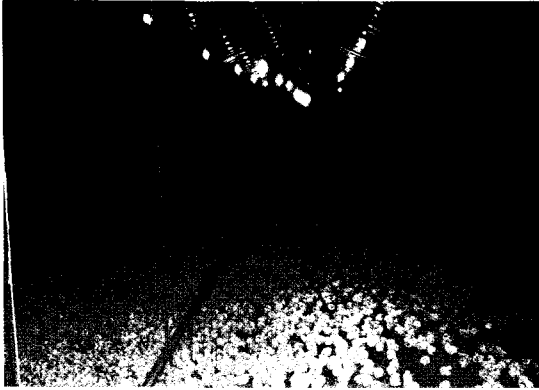
처음 양계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켜보자. 혹시나 싶어 3~4시간 단위로 밤낮 없이 농장을 누비고, 물은 잘 먹는지 사료는 있는지 온·습도는 잘 맞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서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에서 한 파스 한 파스 경력이 더해지며, 흔히들 이야기하는 ‘나만의 point 관리’, 즉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을 것이다.

‘point 관리 = 일령별 중점관리’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며 그 중 한 가지인 음수량 체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음수량 변화와 계군 이상 징후

일일 음수량은 계군의 상태 및 일일 사료섭취량 예측의 중요한 기본자료이다. 사료와 물 섭취량의 비율은 대략 사료 1kg과 물 1.5~2.0l (일령, 계절별 차이 보임)의 비율을 보이며 평균 1:1.7 정도의 비율로 계산하고 계군에 문제 발생시점 2~3일전 일일 음수량의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한다.

음수량의 증가가 주춤하거나 감소될 경우는 질병의 감염이나 관리상의 실수로 인한 일시적인 저하 등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인하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음수량의 변화가 관찰되었다면 계사 내의 온



니플 급수기도 보조물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 습도, 환기의 변화를 주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물라인의 막힘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니플의 경우에는 수압이 적정인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인을 찾아 대처한다면 회복이 빨라 정상적인 사육이 가능하지만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음수량에 변화가 시작되면 사료섭취량 역시 변화가 함께 발생되며, 2~3일 후 계군 상태가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며 폐사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사 발생 후 약품투약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보다 투약대비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전 계군에 질병의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사육 후반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정상적인 사육보다는 빠른 출하를 요하는 경우를 한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표 1〉을 보면 1동의 경우 26일령부터 음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29일령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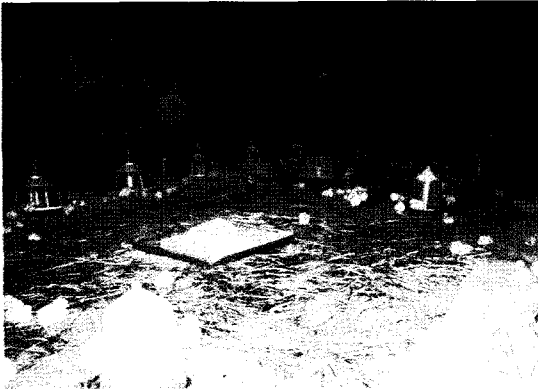
〈표 1〉 전북 OO농장 일령별 음수량

일령	음수량/수(ml)		평체(kg)	
	1동	2동	1동	2동
19	185.4	187.1		
20	183.1	195.7		
21	193.2	196.8		
22	214.4	234.4		
23	237.8	241.4		
24	242.3	259.2		
25	253.5	264.5	1.17	1.16
26	255.7	274.2		
27	262.4	285.0		
28	253.5	304.3		
29	237.8	295.7		
30	224.4	251.6		
31	209.9	218.3	1.54	1.63

폐사가 급증하는 증상보이며 31일령 1.54kg로 출하가 완료되었다. 2동의 경우 29일령부터 음수량 섭취가 줄어 31일령 출하 당일 폐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출하 시 평균 중량은 1.60kg이며 요구율은 1.85의 성적을 보였다.

〈표 1〉 농장의 경우 음수량을 보면 폐사 발생시점 3일전부터 음수량의 변화가 크게 보임을 알 수 있었으나 폐사 발생시점에서야 닭의 이상증상이 확인되어 출하일령을 당길 수가 없어 농장의 피해를 줄일 수가 없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밀한 주의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일 음수량을 세밀하게 체크하여 음수량의 증가가 미비하거나 감소될 경우 수의사나 농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폐사 발생 전에 한발 앞서 대처를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사육을



육추준비에서 보조물통이 필요하다.



물탱크도 신선한 급수를 위해 단열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선수가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사육에 있어서의 기본기 또한 잘 갖춰져야 지금보다 나은 성적을 욕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육추기간의 음수관리 중요성

육계 사육일령이 단축되면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계군 문제 발생 시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효과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군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3~5일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투약비용과 기대효과를 비교해보면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역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대비 수익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조치, 즉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육 과정 중 예방의 기본은 병아리가 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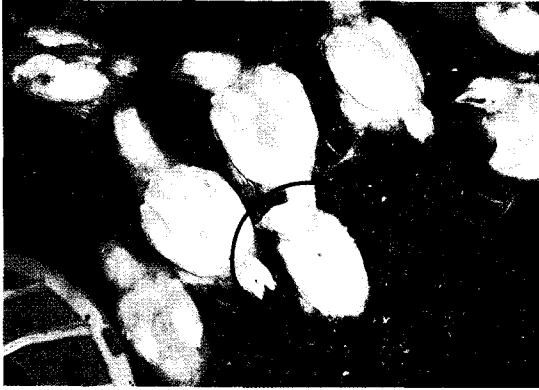
내부의 쾌적한 환경에서 사료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쾌적한 환경’ ‘사료’ ‘물’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어느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 예방은 실패하고 정상적인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음수관리인데, 특히 육추기간의 음수관리는 계군의 균일도나 각종 장기의 발달, 골격형성, 정상증체 등 육계 성장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매일 음수량 체크는 사육 전 과정에서 계군 징후의 문제점을 3~4일 전에 발견하여 예방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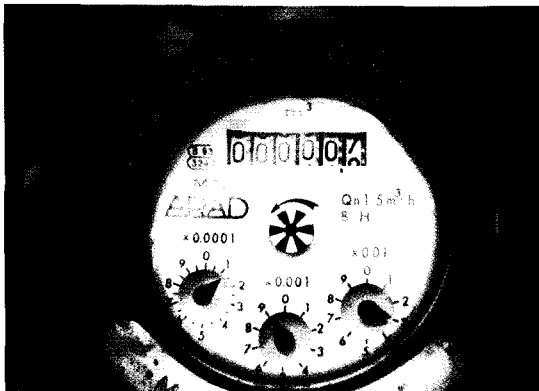
육추기간에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모든 병아리들이 신선한 물을 골고루, 충분히, 쉽게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당연히 사료섭취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육추기간 음수량 부족으로 약추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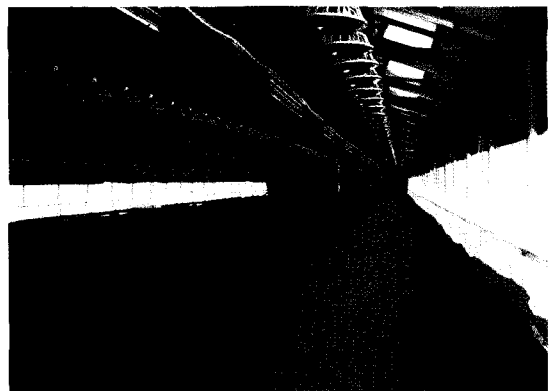
음수량 부족은 탈수의 원인이 되고, 약추가 발생한다.



수량기는 동별로 반드시 설치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확인·기록한다.

급수기의 종류에 따라 관리방법이 다르지만 육추기간의 음수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서 반복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현장 관리를 하다보면 농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바닥에 물이 쏟아져서 물통을 자꾸 높게 유지시키는데 아무리 물통이 많아도 결국 물을 병아리가 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통 높이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물도 많이 쏟아지고 병아리가 물을 못 먹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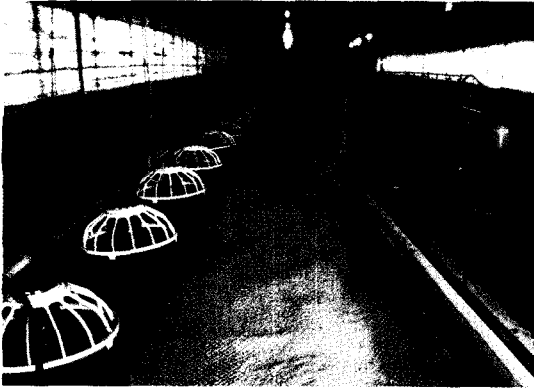
깔짚수평은 급수기 높이 조절과 음수기회에 영향을 준다.

관리자가 서서 물통높이를 보지 말고 엎드려서 병아리 등 높이에서 물통의 높이를 조절해 줘야 정확한 물통 높이를 유지시킬 수 있다.

물론 계사 바닥(깔짚)의 수평 유지는 물통 높이를 맞추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두 번째는 물을 신속히 먹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필자가 농장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니플 밑에 종이를 깔고 사료를 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육추관리를 하면 사료와 물을 가장 신속하게 병아리가 먹을 수



급수기 밑에 종이를 깔고 초이사료를 급여하면 첫 음수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보조사료통 근처에 보조물통이 필요하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아리가 깨끗한 물을 신속하게 충분히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본사양의 출발은 사람 입장이 아닌 병아리 입장에서 관리하면 된다.

3. 음수량 체크방법

아직도 농장에서 동별로 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닭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 즉시 수량계를 구입해서 각각 동별로 수도 배관에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생산지수가 꾸준히 300을 넘는 농장을 분석해보면 특별한 사양기술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의 세심한 관리가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동별 음수량 체크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계절별로 동별 수수당 물의 소비량을 체크한다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사육관

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가급적 계절별로 입추수수를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음수량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갑자기 폐사가 증가했다던지 긴급한 출하요청을 하는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육과정 중 26일령까지는 원자재 투자비용과 동일하다고 보고 27일령부터 출하 때까지 실질적인 농장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농장의 수익이 시작되는 일령부터 계군의 증체가 얼마나 좋으냐와 폐사가 얼마나 감소하느냐가 농장의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툰 글이지만 필자의 몇 가지 언급이 각 농장별로 음수관리에 관심을 갖고 세심한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모든 농장에서 성공사육으로 수익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